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2. 06	02. 13	02. 20
대 표 기도	정용현 집사	노지민 성도	강희수 성도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노지민 성도	강희수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생명의 삶 범위 - 2월은 누가복음 9~17장까지입니다.
2. 2월부터 예배 순서 중에 일부분 조정됩니다.
3. 1월 생일 - 류연진 자매, 김새연 자매 이예준 형제
4. 이사 - 양승원, 이효실 성도 가정(31일, Hessen지역)
5. 코로나 대응 - 규칙을 숙지하고 지켜주시시오(Luca 확인)  
교회 내 교제가 제한되고 있으나 성도 간 격려와 돌봄에 힘써 주십시오.

교우동정

졸업 연주	이세현 형제 - 31일(월)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신년감사	
성탄감사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 426장 ..... 다같이
- 기 도 Gebet ..... 김효종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 눅 7 : 6 - 9(신p100)..... 김효종 집사  
(Lukas 7:6-9)
- 설 교 Predigt ..... 말보다는 행동으로! .....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 427장 .....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Martin Luther King 목사는 평소에 “우리는 저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이중인격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찢겨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삶 속에서 동족상잔의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줄 담배를 피워 대며 “시위하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행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하나까 하는 겁니다”라고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King 목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까? 킹 목사가 흑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며 영적 지도자로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 연약한 모습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담하게 죄를 저지르라 다만 그럼에도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향유하라” 킹 목사가 발견한 것은 흑인도, 백인도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100퍼센트 죄인입니다.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자신이 100퍼센트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의 존엄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존엄할 때는 자신이 100퍼센트 죄인임을 인정할 때입니다. 잘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절대 순종 / 김양재 목사  
(우리들교회 담임)

\* 주님 앞으로 나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마주 서는 때, 그때가 우리를 참으로 발견하는 때이다. - Kierkegaard(키에르케고르, 덴마크 철학자) -